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②박주선(국민의당·광주 동남을)

“野 정통성 확보... 호남 집권당 될 것”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동남 을)의 정치 일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다. 4번 구속, 4번 무죄 등 수많은 정치적 역경을 돌파한 그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선도 탈당, 국민의당 탄생을 초석을 놓았다.

그는 탈당 당시, 더민주를 민주주의 없는 친노패권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진보정당, 민생을 외면하는 강경투쟁정당, 수권 능력이 없는 무능력입정당으로 몰아붙였다.

다당제 정치체제 전환을 통한 야권의 창조적 재편을 주장한 그는 지난 1월 통합신당을 창당하고 국민의당과 합당했다.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을 통해 제3당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그가 내세운 다당제와 야권 재편은 현실화했다. 20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넘은 그는 이제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창출을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또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립정부 구성과 함께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의 정치 혁명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민주 원내 1당 된 건

새누리 실정·오만 반사 이익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나.

▲3당 체제 하에서 협치의 정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되게 됐다. 야권의 심장이 호남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절묘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 냈다. 특히,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더민주가 원내 1당을 했다. 예상했나.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다당제 체제에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었다. 하지만 더민주가 원내 1당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호남이 더민주를 정치적으로 비토했는데도 원내 1당을 했다. 호남 없이도 선거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호남 패러독스’라는 말도 나온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은 호남이다. 호남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로 국민의당이 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더민주의 의원들은 많지만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오래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민주가 원내 1당이 된 것은 새누리당 실정과 오만에서 반사 이익을 본

것이며 자체 동력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당은 창당하지 얼마 안 된데다 더민주의 선거 연대 폭수에 휘말리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호남 고립 구도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호남 고립화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야권의 대표성을 확보함에 따라 오히려 호남의 확장성이 크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중심으로 중도개혁 세력의 연합체를 만들 수 있다. 오히려 더민주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당 투표에서 증명됐다.

-더민주가 수도권과 영남에서 선전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형적인 새누리당 심판의 단순한

반사 이익이다. 더민주 승리의 주역은 오만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특히, 더민주와 문 전 대표가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거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확장성이 없다.

-호남 민심이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했다는 말도 있다.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현명한 판단과 현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호남 민심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광주 방면에서 밝힌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 발언은 지켜져야 하나.

▲정치인의 말은 하기도 어렵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문 전 대표는 책임질 줄을 모르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말에 앞서 책임을 지는 정치를 배워야 한다.

-호남정치복원의 의미는.

▲호남 정치권이 호남 민심이 담긴 국민의당을 키워내고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의당이 자체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거 DJP 연대처럼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당권 및 대권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주위에서 권유가 있지만 호남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당내에서 호남이 당권을 잡으면 ‘호남 자민련’이 된다는 말도 나온다.

▲친노 정당의 길을 다시 가자는 것이나,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우리당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출발했고 호남의 힘으로 만들어진 당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 아닌 호남 집권당이 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 체제를 통합하는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인지.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 다. 여기에 문화산업투자진흥지역 활성화에도 매진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국인 학생들 4·19민주묘지 참배

4·19 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한림대학교 신학과 외국인 학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100만대 조성 등 현안사업 지원 건의

광주시, 내달 4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

광주시가 4·13총선 이후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빠르게 협력체제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5월4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8명에게 시정 현안과 함께 주력 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시정 현안을 당과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 이를 관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들 공약을 실현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의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선 과정에서 각 당과 당선인들의 공약에 포함된 광주의 현안은 광주형 일자리

연계,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산업밸리 조성 사업 등이다. 모두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회와 당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 사업의 내년 예산 편성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광주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전기연구원, 세방전지(주), LS산전(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업체들이 입주해

어, 산단을 서둘러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예산확보 등 국회의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밖에 경전선(慶全線) 전철화 사업은 광주 송정역과 부산 삼랑진역(300.6km)을 잇는 경전선(慶全線)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대표적 간선철도를 전철이 오갈 수 있도록 선형(광주~순천구간·113km)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으로 건의된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은 현재 단선인 119km 구간을 복선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호남과 영남 내륙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2019년까지 택시 1262대 감차

울 13개 시·군 69대 줄여

전남도가 올해 69대 등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1262대를 감차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액이 적어 실제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곡성,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신안 등 8개 군에서 운행하는 택시 33대에 이어 올해 13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69대를 감차한다. 올해 택시를 줄이는 군은 담양, 곡성, 보

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이다.

2019년까지 1262대를 줄이는데, 이 같은 규모는 전체 택시(7062대)의 18.3%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감차 택시에 대해 대당 1300만원(국비 30% 시·군비 70%)을 보상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Prague. It includes details about premium road trip packages, hotel stays, and flight options. The ad is visually appealing with images of Prague and a clear layout of travel information.